

**케냐, 사파리투어 2박3일**  
**개인투어, 소요경비**  
**14년 4/30 기준**



## 1. 소요 비용

- **사파리 패키지 요금** : 1박2일 약 350\$ ~ 2박 3일 약 600\$, 4박 5일 약 1000\$ (사파리 여행 및 숙박, 식사 포함)
- 나이로비 한인 게스트하우스 숙박요금 : 45\$ ~ 60 \$ (조식포함)
- 특급호텔 숙박요금 150\$ ~ 250\$
- 케냐 도착비자 : 50\$

## 2. 사파리 안내

- 아프리카의 사파리는 탄자니아와 케냐가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케냐의 암보셀리와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이 널리 알려져있다.
- 상기 국립공원은 비슷한 듯 하지만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세렝게티는 응고 룡고로 분화구와 다수의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케냐의 암보셀리는 동물들은 타 국립공원들에 비해 개체수가 적은 편이지만, 킬리만자로산을 가장 전망 좋게 관람 할 수 있으며 코끼리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이다. 마지막으로 마사이마라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허나, 시기에 따라서 동물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고려하여 동물들이 많은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 암보셀리 국립공원과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으로 **사파리 투어는 개인입장이 불가하기에 여행사 예약이 필수적이다.**  
 둘 중 하나의 국립공원을 선택하여 여행사에 예약을 하고,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여행사 관계자가 나와있을 것이다. 여행사 관계자에게 패키지 대금을 지불하고 사파리 차량에 탑승하면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된다.
- 대부분의 여행객은 2박 3일 일정을 선호한다.



#### < 기념품 매장 >

국립공원 이동중 혹은 나이로비에서 기념품매장에 들 것이다. 처음 부르는 가격의 대략 3분의 1 ( 예 ) 2000\$-> 700\$ )로도 구매가 가능하니 흥정을 잘하도록 하자.



#### < 나이로비 - 국립공원간 도로 >

나이로비를 벗어나면 끝없이보이는 2차선도로와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다. 국립공원 밖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면서 많은 동물들을 관람 할 수 있다.

- 저녁에 공항에 도착 할 경우, 나이로비의 사파리 파크호텔 (한국그룹 파라다이스가 운영)에서 바비큐와 공연을 즐기거나 저렴한 패키지의 경우,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다.  
다음날 조식후 해당 국립공원으로 출발하여 롯지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점심식사를 한뒤 사파리 드라이브를 즐기고 저녁식사 및 공연을 관람한다. 그 다음날 조식후 사파리 드라이브를 한번 더 즐긴 후, 나이로비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 나이로비-암보셀리간 4시간, 나이로비- 마사이마라간 약 4시간소요 )
- 아침에 공항에 도착 할 경우에는, 나이로비에 머물지 않고 해당 국립공원으로 출발하여 사파리 일정을 즐기고 다음날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소개한 두가지 경우의 일정은 여행사들의 일반적인 일정이며, 가격과 일정은 여행사에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 사파리파크 호텔의 야생동물 바비큐 >

사파리파크 호텔에는 바비큐 디너가 있다.  
악어, 낙타, 임팔라 고기와 같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야생고기를 제공하는데, 공연을 보며 맥주를 곁들여 먹는 만찬은 굉장한 별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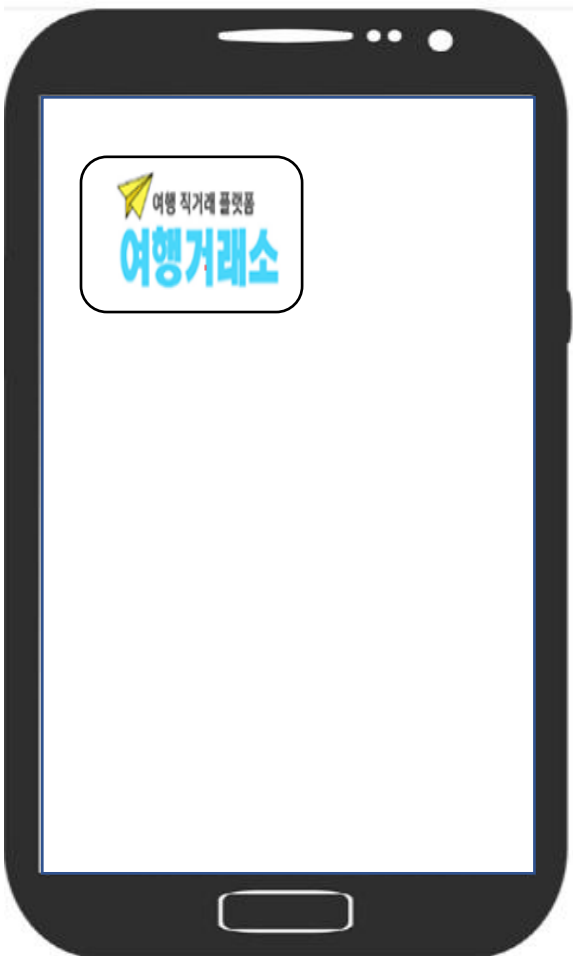
#### < 사파리파크 호텔의 로비 >

사파리파크 호텔은 한국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로, 축구장 3배 크기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사진은 호텔의 메인로비 코끼리상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해가는 포토존이다.



지난 2014년 4월 2박 3일 일정으로 나이로비를 다녀온 기록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출처 : 주 수단 한국 대사관 ( 140430 )



## ‘ 여행거래소 ’ 검색 후 설치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아이폰’용은 없어요 ( 개발하지 않음 )

[www.GV10.com](http://www.GV10.com) 참고